

## 3강 함축적 의미 파악

Gateway 디지털 플랫폼이 사업 수행에 끼친 영향

Digital platforms have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

As work becomes ever more modularised, commoditised and standardised, and as markets for digital work are created,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can be disconnected.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that emerged in the 1990s allowed large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a 'global reserve army' by moving their call centres to cheap and distant labour markets, cloudwork changes the volume and granularity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A small business in New York can hire a freelance transcriber in Nairobi one day and New Delhi the next.

No offices or factories need to be built, no local regulations are observed, and — in most cases — no local taxes are paid.

The switch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work happens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or clicking some buttons on a digital work platform.

And, in this way, the employer leaves behind no material traces in the places where it was once an employer.

디지털 플랫폼은 많은 일을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 일이 점점 더 모듈화되고, 상품화 되고, 표준화되면서, 그리고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서비스 노동과 특정 장소 사이의 연결은 끊어질 수 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이 대기업이 콜센터를 값싸고 먼 노동 시장으로 옮김으로써 '글로벌 산업예비군'을 활용하도록 해준 한편, 클라우드 워크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곳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와 과립상(顆粒狀)을 변화시킨다.

뉴욕의 작은 기업이 어느 날은 나이로비의 프리랜서 필사생을, 다음 날에는 뉴델리의 필사생을 고용할 수 있다.

사무실이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고, 현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현지 세금도 내지 않는다.

노동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은 단순히 몇 통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버튼을 몇 개 클릭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고용주는 한때 고용주였던 장소들에 어떠한 물질적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 1 전략적 재배 기법

Even outdoors, although climate (including temperature) is usually regarded as beyond the control of man, localized temperature control is sometimes effective on a microclimate scale.

Vancouver, Canada, is a few miles north of the 49th parallel, about 60 miles farther north than Minot, North Dakota, with its legendary harsh winter temperatures.

But constant foehn winds off the Pacific Ocean make Vancouver winters mild and wet, although sunshine is scant.

When I had a garden there in the late 1940s, a neighbor used to say that I "cheated God" to bring in my lettuce and tomatoes earlier than anyone else. The bed in which the vegetables grew was banked toward the south at approximately 50 degrees, and the area between the plants was covered with flat stones, gathered from the nearby beach, to maximize soil heating from the weak late winter-early spring sun.

## 2 직장에 대한 충성심의 의미

Energy can always be injected into an organization to motivate people to do things.

Bonuses, promotions, other carrots, and even a few sticks can get people to work harder, for sure, but the gains are, like all manipulations, short-term.

Over time, such tactics cost more money and increase stress for employee and employer alike, and eventually will become the main reason people show up for work every day.

That's not loyalty.

That's the employee version of repeat business.

Loyalty among employees is when they turn down more money or benefits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company.

Loyalty to a company trumps pay and benefits.

And unless you're an astronaut, it's not the work we do that inspires us either.

It's the cause we come to work for.

We don't want to come to work to build a wall; we want to come to work to build a cathedral.

(기온을 포함해서) 기후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야외에서조차 국지적인 온도 조절은 미기후 수준에서는 때때로 효과를 발휘한다.

캐나다 Vancouver는 위도 49도선에서 몇 마일 북쪽에 있으며, 겨울철 기온이 혹독하기로 유명한 North Dakota 주 Minot보다 약 60마일 더 북쪽에 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편 바람 덕분에 Vancouver의 겨울은 일조량은 부족하지만 온화하고 습하다.

내가 1940년대 후반에 그곳에 텃밭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 이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상추와 토마토를 거두기 위해 '신을 속였다'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채소가 자라는 바닥을 약 50도 정도 남쪽으로 향하도록 쌓아 올렸고, 식물 사이의 공간을 인근 해변에서 모아온 평평한 돌로 덮어 늦겨울부터 초봄까지의 약한 태양으로 흙을 최대한 따뜻하게 했다.

사람들이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항상 조직에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다.

보너스, 승진, '다른 당근(유인책)' 심지어 얼마간의 회초리는 확실히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조작이 그렇듯 그 이득은 단기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책략은 더 큰 비용이 들게 하고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가중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니다.

그것은 재방문 고객의 직원 버전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충성심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나 혜택을 거절할 때 존재한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급여와 혜택을 능가한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아니다.

우리가 일하러 오는 이유는 바로 대의명분이다.

우리는 벽을 쌓기 위해 출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당을 짓기 위해 출근하고 싶어 한다.

### 3 생물학적 역사 기록인 DNA

In the early 1960s the great American writer James Baldwin wrote: "People are trapped in history, and history is trapped in them."

He was speaking to race when he penned those words.

But the statement is equally true if the word "people" is replaced with "all of life on Earth, present and past," for each strand of DNA, in each of our cells, is an ancient record of biological history, written in simple code and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ne could say that DNA is nothing but history, one with a physical manifestation that was slowly blended and accumulated over countless eons by the most pitiless of all phenomena — natural selection.

DNA is a history that is inside us — and yet one that is our master as well, the blueprint for our bodies, and dictator of what we will pass on to our children, gifts that can be blessings — or deadly time bombs.

We are indeed trapped in this particular vehicle of history as much as it is trapped in us.

1960년대 초반, 위대한 미국 작가 James Baldwin은 "사람들은 역사에 갇혀 있고, 역사는 그들 안에 갇혀 있다."라고 썼다.

그가 이 말을 쓸 때 그는 인종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현재와 과거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로 대체되어도 이 말은 여전히 사실인데, 우리의 각 세포에서 각 DNA의 가닥은 단순한 코드로 기록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생물학적 역사의 아주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DNA란 다름 '아닌' 역사, 모든 현상 중 가장 무자비한 현상, 즉 자연 선택에 의해 셀 수 없이 많은 역겹게 걸쳐 서서히 혼합되고 축적된 물리적 구현물을 가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DNA는 우리 안에 '있는' 역사요, 그럼에도 우리의 주인이기도 한 역사이며, 우리 몸의 설계도이고,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의 절대 권력자인데, 축복일 수 있는 선물이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시한폭탄이다.

우리는 진정 이 역사의 특정 매개물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갇혀 있다.

#### 4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두려움

People may not think critically for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laziness and inability, but fear is a big one.

Why is that?

People don't want to think not just because it's hard, but also because they're afraid it will make them question their long-held beliefs.

Your students most likely do want to think about things that can be very controversial, like politics, ethics, and philosophy.

But probe even deeper.

Once we start thinking deeply, long-held assumptions are challenged.

Thought makes us worry that we'll lose our balance and have to look at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We worry about thinking because we care about what we and other people think.

Even the most far-fetched ideas have an effect on the world.

Non-Euclidean geometry and symbolic logic are about as abstract as thinking can get, but you can't understand Einsteinian gravity without the first and run computers without the second.

Thinking is important to us, to others, and to the world we live in.

This is one reason why we are so afraid of it: it shakes us to the core.

사람들은 게으름과 무능 같은 다양한 이유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두려움이 하나의 큰 이유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들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신념에 의문을 품게 할까 봐 두려워서 사고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의 학생들은 틀림없이 정치, 윤리, 철학처럼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사고하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훨씬 더 깊이 조사해 보라,

우리가 깊이 사고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간직해 온 가정을 의심하게 된다.

사고는 우리가 균형을 잃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될까 봐 걱정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걱정한다.

아무리 억지스러운 생각이라도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비(非)유클리드 기하학과 기호 논리학은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한 대체로 추상적이라 하겠지만, 전자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이해할 수 없고 후자가 없으면 컴퓨터를 실행할 수 없다.

사고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하나의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를 송두리째 흔든다.